



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8년 8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제약업계, 리베이트와의 전쟁 “올 하반기도 주욱~”
- 문재인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인터내셔널 페이퍼] 내부고발제도 운영

3. 청렴 위반 사례

-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배우자 특혜 채용
-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인사안을 직접 작성

4. 지식마당

-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제약업계, 리베이트와의 전쟁 "올 하반기도 쭈욱~"

한미약품과 종근당, GC녹십자 등 제약사들이 올 하반기 들어서도 불법 리베이트 근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윤리경영을 준수하는 우수자를 시상하고 위반자에 대해 인사 제재를 가하는 등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시행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동과 더불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을 인증받으며 윤리경영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CP는 산업계와 학계 대표들로 구성된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등급을 평가한다.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전 직원은 물론 조직과 사업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관리하기 때문에 CP보다 적용 및 인증이 훨씬 까다롭다.

이 같은 시스템을 적용한 제약사들은 CP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윤리경영을 준수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미약품은 올 상반기 동안 CP 위반자 2명을 감봉하고 4명을 견책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종근당 역시 같은 기간 CP 위반으로 감봉 3명, 정직 2명, 경고장 18명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1차 위반자에 대한 11건의 경고 및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다. 동아에스티는 2차 위반시 징계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 1차 위반에도 바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일동제약도 CP 위반자 36명에게 서면 경고를 내렸다.

제약사들은 올 하반기 윤리경영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내놨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지난해 11월 ISO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에서 ISO37001 리스크 평가시스템 등의 교육을 실시 중이다.



추가적으로 국제 반부패아카데미 해외연수 교육과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도 예정하고 있다. GC녹십자는 지난 5월 취득한 ISO37001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 개선하는 한편, 협력사들의 CP 운영도 점검할 예정이다.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준법윤리경영 준수 실천 서약도 받을 예정이다.

동화약품은 마케팅 본부인 고객감동본부의 CP 교육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 중 CP 테스트를 진행해 불합격자·미응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및 재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원제약, 일동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도 임직원 대상 교육과 모니터링 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국내 제약업계가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흐름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윤리경영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ISO37001 인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들이 앞다퉀 윤리경영을 확립하는 흐름이 대세로 자리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97286619312240&mediaCodeNo=257&OutLnkChk=Y

최근 동향 및 소식

2. 문재인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해 보고내용을 공유했다.

금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로,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여건에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 밖에 2030세대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4대 전략 분야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5&method=searchDetailVewInc&boardNum=69179&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27&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B9%DD%BA%CE%CD%DO&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4대 전략	주요과제
함께하는 청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협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수처 등 반부패 관계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점 누수 방지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청탁금지법」 등 강화된 청렴기준을 정착시키겠습니다. -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갑질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지속 엄단하겠습니다. - 민관 유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경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기업의 반부패경영 지원 및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천하는 청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부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사회 각 분야 청렴 사회협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4대 전략>

윤리경영 실천 사례

[인터내셔널 페이퍼] 내부고발제도 운영

1. 기업 소개

인터내셔널페이퍼는 미국을 대표하는 제지회사다. 1898년 미국 북동부에 있는 18개 제지 공장이 연합해 회사를 세웠다. 영문 약자로 IP라고 불리기도 한다.

IP는 1980년대 이후 활발한 인수 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했다. 1986년 인쇄용지 제조업체인 해머밀페이퍼(Hammermill Paper Company)를, 1995년에는 페더럴페이퍼보드(Federal Paper Board Company)를 각각 인수했다.

IP는 윤리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IP의 독특한 기업 문화는 ‘IP의 길(IP WAY)’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IP는 미국 경제 잡지인 <포춘>이 매년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포춘500’에 속해 있다. 또 이 잡지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순위에서 2003, 2004년 1위를 차지하는 등 줄곧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4년에는 경남 사천에 담뱃갑과 상자 등 포장재를 만드는 공장을 세우며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주력 사업은 인쇄용지, 포장재지, 백상지 등 종이 생산과 펄프 관련 화학제품을 만드는 일이다. 뉴욕 증시에 주식이 상장 돼 있고, 본사는 테네시 주 멤피스에 있다.

2. 윤리경영

1백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펄프·제지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역시 일찍부터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경영 위험을 통제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요컨대, 제지·펄프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사업일수록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경영철학이 중요하다는 경영진의 판단 아래 기업윤리의 실천에 앞장서 왔다.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킴벌리 클라크에 앞서 제조업으로 벌목한 나무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는 사업을 전개한다는 자원관리책임서약(Resource Stewardship)을 공표하고 준수해 온 기업이며 신중한 사업전개로 경쟁업체와 달리 반독점 시비와 소비자의 저항에 휘말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쟁사인 테트라팩이 자사 포장용지만을 사용할 수 있는 포장기계를 개발하여 식음료포장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였으나, IP는 이러한 사업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인 킴벌리 클라크, 포트 제임스, 조오지아 퍼시픽 펄프가 가격담합으로 5,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무는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았다.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윤리경영 사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내부고발제도를 윤리경영 실천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제보전화 Help Line은 전세계 어디서든 1분 내에 본사의 콜센터와 연결되며 동시통역이 지원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전화나 메일로 접수된 제보가 법무팀 또는 인사팀의 조사 적정성 평가와 윤리사무국의 판단을 거쳐 통보되는 시간은 통상 20일 밖에 걸리지 않는다.

구분	전체전화(건수)	익명의 전화(%)	실명의 전화(%)
1998	928	52	48
1999	1,162	52	48
2001	1,272	44	56
2002	1,432	34	66

<IP의 내부고발제도 운영실적>

윤리경영 실천 사례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제도는 악용될 소지가 많아 종업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지만,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내부고발제도는 1998년 절반을 넘던 익명의 전화 제보가 2001년 34%로 감소할 정도로 윤리경영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는 철저한 보안을 통해 제보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비리적 발이 아닌 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Help Line을 통해 제보된 사례들은 임직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윤리적인 딜레마를 직원 전체가 공유하도록 사용된다.

1. 윤리경영의 공유

윤리강령을 확정함과 동시에 전 세계 인터내셔널페이퍼 임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1998년에 윤리 및 비즈니스 관행을 전담하는 임원과 조직을 설치하고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기획, 감시, 감사를 강화하였으며 윤리핸드북을 17개 국어로 번역하고 출장 시에는 윤리관련 테스트 문항이 적힌 카드를 휴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IP 윤리강령 핸드북 표지>

‘At Our Core’로 시작하는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은 총 5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Commitment, Ownership, Respect, Excellence 4개의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인터내셔널페이퍼 공식 홈페이지
한국경영자총협회, “勞使相生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Luggage card 내용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자문하라

- ▲ 내 행동이 합법적인가?
- ▲ 내가 과연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 ▲ 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과연 옳다고 여겨질 것인가?
- ▲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
- ▲ 신문에 보도되면 어떻게 보일까?
- ▲ 오늘 밤 편히 잘 수 있을까?
- ▲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자문하라.

청렴 위반 사례

1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배우자 특혜 채용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산하 공단에 파견되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후, 별도의 공고 없이 1인 면접을 통해 배우자를 정규 지원으로 특별 채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급 자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음

시사점 :

- ① A공무원이 채용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인사규정을 임의로 개정하고, 별도의 공고도 없이 1인면접으로 채용하는 것은 배우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이해관계 직무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서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특혜의 배제)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2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인사안을 직접 작성

모 공직유관단체 인사담당자 공무원 A는 자신의 인사안을 직접 작성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무평정을 하고 승진대상자 순위명단에도 선순위로 등재되도록 함

시사점 :

- ① 공무원 A는 인사담당자이므로 자신의 인사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생략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임.

지식마당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

1. WHAT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란 2009년 세계은행, 2013년 유럽투자은행과의 합의로 독일 지멘스 본사가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경영을 확산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00백만 달러 규모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이다. 전 세계 범위에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 및 교육과 훈련(Education & Training) 관련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 HOW

A. 공동노력

공동노력이란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준법기준을 향상시키고 청렴과 윤리경영의 필요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지멘스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 1)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부패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이 회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 예} 나라의 법체제 강화시키기, 능력배양 또는 교육 개혁의 필요성 인지하기 등.

- 2) 제도 강화: 유엔 반부패협약과 OECD 뇌물방지 협약과 같은 국제적으로 강화된 반부패 제도를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 예}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반부패 제도를 강화 또는 조정하기, 기업이 법 집행기관 및 정부와 협력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제도 설립하기 등.

- 3) 자발적 기준을 강화: 반부패 제도 및 준법 기준을 지키고 개선시키며 반부패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구하는 것

- 4) 우수한 성적에 따른 보상제도: 회사에게 반부패 및 준법 시스템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행하는 회사에게 주는 보상 체계를 만들기

→ 예} 보상 대상자에게 세금 혜택,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및 반부패 프로그램 용 보수 지급 등.

B. 교육과 훈련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두번째 요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금융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청렴성과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여긴다.

- 1) 교육과정 개발: 금융회사 뿐 아니라 경영, 법관련 교육기관에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안 및 사기 범죄를 감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함.

- 2) 전문 능력 배양: 기존의 매니저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매니저들, 공무원들, 시민단체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교육과정을 설립해야 함.

- 3) 대화의 장: 반부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육과정에 담아낼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함.

- 4) 지식 공유: 신흥시장 또는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금전적 지원을 해주며 반부패 관련 교육을 마련해주고, 각 교육기관 사이에서도 반부패 및 청렴성 관련 교육을 공유하며 표준화 시켜야 함.

지식마당

3. 프로젝트를 통한 영향

지멘스는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다. 첫 번째는 지멘스 사무실이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두 번째는 지멘스가 익숙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업 분야를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어느 정도의 지멘스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으며 가까이 있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대상들이었다.

프로젝트는 위 조건의 대상들의 사업환경에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시장 조건을 창출하는데 기여함을 목표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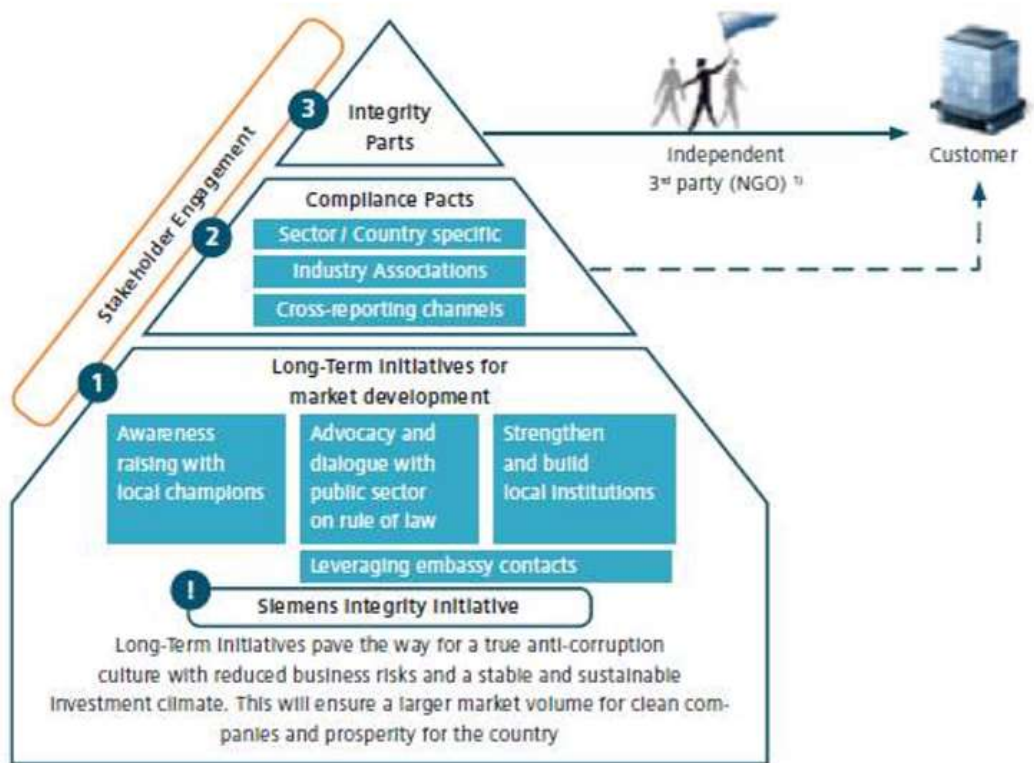
또한, 지멘스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데도 여러 조건을 둔다. 프로젝트는 부패와 사기 범죄를 대응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인권, 사회적 이슈, 수출 통제 등 여러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쟁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확장시켜 여러 다른 지역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멘스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기관의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프로젝트를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기관의 자금적 및 조직적 역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Siemens, "Third Funding Round: All you need to know."

Fair Player Club(2016), "의로기기산업의 준법윤리경영 교재".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공동노력 모델>

Quiz

- 다음 중 지멘스의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명으로 옳은 것은?
 - UN반부패협약
 - OECD뇌물방지협약
 -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 ISO37001
- 다음 중 지멘스의 공동노력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공과 민간의 협력
 - 제도 강화
 - 자발적 기준을 강화
 - 성과와 상관 없는 균등한 보상제도
- 다음 중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의 교육과 훈련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식의 독점
 - 교육과정 개발
 - 전문 능력 배양
 - 대화의 장
- 다음 중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부패와 사기 범죄를 대응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함
 - 인권, 사회적 이슈, 수출 통제 등 여러 분야를 고려해야 함
 - 프로젝트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잦을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하나의 특정 지역에만 적용 가능해야 함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 답 ③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 답 ④ 성과와 상관 없는 균등한 보상제도
- 답 ① 지식의 독점
- 답 ④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하나의 특정 지역에만 적용 가능해야 함

관련 행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반부패·청렴 실천 거리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석추)는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사무처장 고태연) 등 4개 단체와 청렴실천단 간담회를 개최, 청렴도 향상 제고방안 및 추진사항을 점검한 후 연삼로 사거리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를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거리캠페인은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과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처리 수행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 노력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3409>

2. 울산시, '2018년 계약심사 공무원 업무연찬회' 개최



울산시(시장 송철호)는 31일 오전 9시 30분 롯데 시티호텔에서 '2018년 계약심사 공무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8년 계약심사 업무 연찬회'는 시, 구, 군, 공기업(산하기관) 등 발주부서 직원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찬회는 인사이동과 타 업무 겸임 등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발주부서 직원들의 설계서 작성 기법 및 원가작성 시 착오 및 오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계약 실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등의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반부패 청렴문화를 민간영역까지 확산하기 위한 지역사회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관련 동영상도 상영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 대한 계약 실무사례 공유와 최신정보 습득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속해서 예산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08286#close_kova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